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2009년 12월 30일 pp.23~44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1)]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김 선 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목 차 >

Ⅰ. 들어가면서

Ⅱ. 9.11테러를 전후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접근양상
1. 9.11테러 이전의 미국 군사 안보 전략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접근
2. 9.11테러 이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접근

Ⅲ. 중앙아시아 內 미. 러간 지역 안보시스템의 대립
1. 중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안보와 신거대게임(New-Greatgame)
2. 지역안보 시스템의 대립-- 나토(NATO)와 안보협력 조약기구(CSTO)의 대립

Ⅳ. 미군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과 대 중앙아시아 전략
1. 미군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2.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정책

Ⅴ. 끝내는 말

Key words(중심용어) : 미국개입(US engagement), 중앙아시아(The Central Asi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미군(US forces), 상하이 협력기구(SCO)

국 문 요 약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진출이 갖는 전략적 의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경제의 주요 경쟁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슈퍼파워의 역할을 또 다시 하고자 하는 러시아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도 지대하다 하겠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맞서 체제이행기라는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 느슨하게 대응하여 왔던 러시아는 뒤늦게 지역 안보조직을 강화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 지위를 재탈환하려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세력 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국의 대립양상을 예측해 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을 위시한 나토(NATO)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기

www.kci.go.kr

1)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 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BM0030)

구인 CSTO가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미군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러시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중앙아시아를 두고 벌어지는 역내외 세력들 간의 갈등과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이에 맞물려 있는 신생독립국가들의 국가안보까지 가늠해 봄으로써,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단순히 9.11테러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9.11테러 이전부터 미국이 준비한 세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려 한다.

Ⅰ. 들어가면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해 10월 빈 라덴이 위치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졌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수행을 위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공군기지와 다국적군을 위한 후방 병참기지가 설치되어 세계 군사전략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세계 3대 유전중 하나인 카스피해 지역을 끼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자원 등이 매장되어 있는 천혜의 자원보고이다.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21세기의 신 그레이트 게임은 19세기 말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두고 각축하던 열강들의 그레이트 게임과 흡사하다 하겠다.

냉전 종식 후 10년간 미국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1990년대 미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은 냉전시기의 봉쇄전략 연장선상에 있었던 개입전략이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흐름이 90년대 후반에는 '안정증진과 격멸'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군사적 목표가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0년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점진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군사작전과 이를 통한 지역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거대 전략(Grand Strategy)은 유라시아 언저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라시아대륙 깊숙이 들어가는 공세적인 것이었다. 특히 9.11테러 이후 중앙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타격하는 후방 병참기지로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미군 기지와 나토의 후방 병참기지가 설치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군 기지들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침투하게 되었고 이 기지들이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 색깔 혁명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러시아의 뒤늦은 대응,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단순히 9.11테러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미국에 의하여 9.11테러 이전부터 준비된 세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문에서 언급하려 한다. 또한, 논문에서 9.11테러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미국 군사력 운용과 대 중앙아시아 접근 군사전략을 비교함으로서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흐름을 읽어 볼 것이다.

www.kci.go.kr

199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경제의 주요 경쟁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역할을 하려 하는 러시아에 쐐기를 박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 미군진출이 갖는 전략적 의의는 지대하다 하겠다. 이러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에 느슨하게 대응하여 왔던 러시아가 뒤늦게 지역 안보조직을 강화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 지위를 재탈환하려는 구도를 살펴봄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개입과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입장에서 양국의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국 대립구도를 예측해 보려 한다. 특히 2001년을 전후하여 전개되는 미군의 주둔과 그 과정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2009년 현재 중앙아시아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미.러의 전략적 입장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미군을 위시한 나토(NATO)의 세력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 기구인 CSTO가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미군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러시아의 대응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21세기 중앙아시아를 두고 벌어지는 역외세력과 역내세력간의 갈등과 그 진행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이 지역 안보와 신생독립국가들의 국가안보 또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9.11테러를 전후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접근 양상

1. 9.11테러 이전의 미국 군사 안보 전략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접근

냉전 종식 후 10년간 미국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1990년대 미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은 냉전시기의 봉쇄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개입전략이었다. 이 개입전략은 군사, 경제, 정치의 3가지 하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군사전략은 2개 분쟁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전쟁에서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박기련 2004, 95-98). 이는 냉전시기의 전 지구적 위협요소였던 소련의 붕괴로 전 지구적 위협보다는 지역적 분쟁이 미국의 군사전술운용에서 더 중요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까지 군사적 목표는 '억제와 방어' 며, 억제는 주로 전략핵으로 수행하였고 방어는 재래식 전력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흐름이 90년대 후반에는 '안정증진과 격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군사적 목표가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Peter Bender Winter, 2003, 143-145)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거대 전략(Grand Strategy)은 유라시아 언저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라시아대륙 깊숙이 들어가는 공세적인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로 이어진 일련의 전쟁은 90년대부터 일관되게 '네오콘'들이 주장해 오던 내용이었다. 98년 미 국무장관 럼스펠드는 클린턴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후세인의 제거를 주장하였으며 '네오콘' 인사들이 조직한 싱크탱크 [미국을 위한 새로운 세기 프로젝트

www.kci.go.kr

(The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 PNAC)]가 낸 2000년 8월 유명한 보고서인 "미국 국방재건(Rebuilding America's Defense)"에서도 이들 나라에 대한 대응수단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암시하고 있다.[2] 또한 국방재건을 위한 급격한 군사비 증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 2의 진주만사태와 같은 쇼크요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9.11사태는 미국의 거대전략의 실현에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과 나토는 알카에다의 본거지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와 군부대를 주둔시켰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확보 전략은 이미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구상되어졌으며 1994년 중앙아시아 4개국(타지크스탄 제외)과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나토의 평화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PfP))[3]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7년에 '경제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에 있어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접근하였다. 이후 나토와 미국은 1996년 5월 플로리다에 있는 패트릭 공군기지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PfP 평화유지와 긴급태세 준비훈련을 시행하였다. 그해 8월에는 미국이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함대에 쾌속정을 제공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과는 몬타나 국가방위군과 예비 병력의 교환훈련을 시작하였다. (Richard Giragosian 2004, 49). 1997년 그루지아의 대통령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와 미국은 아브하지아 패트롤부대를 러시아군에서 미군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그루지아 해양경비대에 쾌속정을 제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제르바이잔과는 석유 수송로의 안전과 지역 안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적 노력의 결과로 1997년 9월 미 82공정사단 병력 500여명이 CIS통합군 산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군대와 함께 합동군사훈련(CENTRASBAT[4])을 실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였다. 1999년 8월에는 그루지아 전투 장비를 소련식 구형무기체계에서 미국식 신형으로 교체하는 협의를 시작하였고, 미국은 10대의 신형 헬리콥터를 그루지아에 인도하였다. 그해 10월 아제르바이잔과 미국은 양자 안보협정을 맺었으며 12월에는 카자흐스탄의 군사훈련과 조직을 재개편하는 문제에 협력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이와 같이 2001년 9.11사태 이전에 이미 미국과 나토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접근에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ENTRASBAT 작전은 이후 1999년, 2000년에도 계속되었으며,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까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요 군사적 접근 사안이었다.

---

2) http : //www.newamericancentury.org/RebuildingAmericasDefenses.pdf 2009년 5월 10일 검색

3)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PfP) 나토의 프로그램으로 나토와 개별국가와의 상호협력 프로그램이다. 냉전 이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붕괴되자 동유럽국가와 포스트 소비에트공간국가를 대상으로 한 접촉프로그램으로 나토 구성원의 저변확대와 가입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군사적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국방개혁, 방위에 관한 협력이 사업내용이다.

4) CENTRASBAT작전은 중앙아시아 3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하여 NATO와 미국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이다. 주요 목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명령을 포함하여 참가국들 간의 연합작전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5) 위의 글

www.kci.go.kr

2. 9.11테러 이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접근

9.11이후 나타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목표는 억제(deter),과 격멸(defeat)이다. 냉전시기 미 군사적 전략목표가 억제(deter)와 방어(defense)였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억제는 전략핵적인 접근이었고 방어는 재래식전력의 접근방법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미국의 군사전략목표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미국의 연례안보보고서에서 미군에 부여된 군사전략목표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Donalet H Rumsfelet 2003, 3).

군사전략목표는 첫째 : 본토수호와 방어(defense), 둘째 : 우방과 동맹국들의 확신(assure), 셋째 : 핵심지역 전방으로부터의 침략이나 강압에 대한 억제(deter), 넷째 : 두 군데의 동시 전쟁에서 신속히 침략을 격멸(defeat),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억제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전진배치와 주둔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진배치와 주둔군으로 모든 돌발사항에 대한 신속전개와 정밀타격으로 억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군 운용전략 개념으로 군의 활동을 좀 더 경량화, 기동화, 정보화된 전 지구적 리치를 가진 군으로 재편하여 세계 곳곳의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전략의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 배치 개념은 전진배치와 집결보유로 정리 할 수 있다. (Philip A. Karber May, 1984, 28-31).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 전략과 국방 정책 그리고 범 세계적 방위태세 보고서(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서 미국은 분쟁과 테러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6]로 구분하고 선택적 개입전략(selective engagement)을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기지를 전략 기지(PPH : Power Projection Hub), 중추 기지(MOB : Main Operating Base) 그리고 전진 작전기지(FSB : Forward Operation Base)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요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 유사시 신속대응군의 전진기지로 삼고 주 병력은 미 본토에 집결하여 대기하는 배치 개념(GPR : Global Defense Position Review)을 추진하였다. 이 군사전략은 대략 20만 내외의 군사력을 해외에 주둔시키고 미 본토에 100만의 주력군을 집결시켜 전 지구적 분쟁에 신속 대응군 형태로 개입 해결하려는 것이다. 불안정의 호에 해당되는 발칸에서부터 북한에 이르는 불량국가와 테러지원 가능국가에 대하여 공세적으로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전략적 리치(reach)를 가진 100만 주력군을 미 본토에 집결 대기시키고 해외지역에 GPR에 의한 해외 군사력 배치와 해당 지역의 우방국에 기지를 건설하여 불량국가와 범세계적인 테러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군사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테러집단의 공격이나 불량국가의 위협에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선제공격도 불사할 것이란 점이다. (박기련 2004, 106-108). 1급 기지는 전투력의 거점이 되고 2,3,4,급 기지는 봉쇄 및 포위망 형성의 기점이 된다.[7] 중앙아시아 지

6) 여기서 불안정의 호란 북한, 중국, 이란, 이라크, 발칸 반도, 지중해 연안, 중앙아시아를 지칭한다. 이 지역은 소위 불량국가, 실패국가, 미국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 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들이 인접국가간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미국에 직접 대항하는 것과 이들 국가를 거점으로 테러를 획책하는 일에 공세적으로 제압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7) 1급 기지는 전투력의 모기지로 대규모병력이 상주하고 군수물자가 비축된다. 이 기지는 미 본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태평양의 괌, 일본, 영국에 설치된다. 2급 기지는 주요작전기지로 1급기지 혹

역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아프가니스탄 작전수행에 있어 거점 상주기지 확보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2001년 전격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간시 미 공군기지가 설치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하나바드 미 공군기지가 설치되어 명실 공히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교섭에서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군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총 4억 2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중 2천 1백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2백 90만 달러 상당의 해안 경비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은 2005년 안디잔사태로 인하여 원점으로 돌아갔다. 러시아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하여 1999년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으며 2004년 6월 방산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력 조약기구(CSTO)에 가입하였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수도 두산베에 나토의 프랑스 지원군이 120명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후방 병참운반을 수행하는 화물수송기를 담당하였다. 2004년에 나토와 타지키스탄은 군사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나토와의 군사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계획을 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나토의 회원국인 영국은 타지키스탄군의 영어 교육과 군사 교육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인력지원을 하였다. 2003년 10월엔 독일의 보르네만 장군 일행이 독일과 두산베 정권과의 군사적 교류와 그 협의를 위하여 두산베에 도착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나토의 군사기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원래 미국과 나토는 슙켄트 공항, 루고프시, 카라간드 등에 약 5천명의 미군 주둔을 계획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카자흐스탄 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의 협약을 체결했다. 2004년 2월 카자흐스탄 국방부장관과 미국 국방부장관은 군사 및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계획에 의거 미국은 카자흐스탄 군 현대화를 위하여 일련의 군수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C-130 수송기, 1천 톤 미만의 해안 경비정, 전투 헬기, 군 수송기 등 2억 달러 규모의 원조도 예정하고 있다. 한국도 PKM 3척을 지원하였으며 한. 카자흐스탄간 수병훈련을 위한 양국군의 교류가 활발하다. (심경욱 2006). 카스피해의 석유 시설 보호와 대 테러작전을 위하여 미국은 카자흐스탄에 해군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2003년 3월 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거 해군 창설을 공표하였다. 아스타나정부는 1,000톤급 미만의 함정 60여척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50t), 터키(70t)가 각각 함정 1척씩 제공하였고 현재 경비정 14척, 수로 탐사정 4척을 포함한 4200명 정도의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카스피해 연안도시 아트라우시에 있는 카자흐스탄 병영의 현대화를 위하여 1천 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8년 12월 1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2002년 미국과 체결했던 알마티 미군기지사용을 정식 비준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카자흐스탄에 미군기지가 설치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나토의 평화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PfP))은 계속될 전망이다.

은 본토에서 즉각적인 전력증강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3급은 전진작전지역. 4급은 안보협력대상지역으로 3,4급 지역은 기본적으로 2급 지역과 같은 기능을 하나 위협정도와 국가 이익에 의하여 구별된다. 2,3급 지역으로는 극동지역에는 한국, 필립핀, 호주 중앙아시아에는 키르기스, 아프카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에 설치되며 유럽에서는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에는 세네갈, 가나, 말리, 케냐에 설치 혹은 고려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미군의 공군기지인 간시기지가 설치되었으며 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후방 병참기지로서 사용되었다. 비슈케크시 마나스 국제공항 내에는 9.11테러 당시 순직한 뉴욕시 소방서장 피터 주니어 간시를 기념하여 이름 붙인 다국적 연합군의 공군기지 간시 공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약 15만 평방미터 크기의 이 기지에는 미군을 비롯하여 한국의 의료 지원부대인 동의부대 43명을 포함, 다국적군 1천 5백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미군기지는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지만 실제 지속적이며 장기적 성격의 계약이다. 계약에 의하여 미군 전투기와 군용기의 이착륙 시 매 회당 7천 달러를 키르기스스탄에 지불하여 매년 약 4천 5백만 달러정도가 비슈케크정부에 들어간다. 간시 군사기지 유지비용도 년 1천4백만 달러가 지출된다고 미국 측 자료에 나타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기지는 키르기스스탄의 이해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나토와 미군의 연합군이 대 아프가니스탄전 이후에도 이곳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키르기스스탄정부는 미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9년 8월 중순까지 철수를 통보하였다.[8)]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하나바드 공항에 2001년 10월부터 1천 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2005년 말까지 이곳에 주둔했었다. (Zdzislaw Lachowski 2007). 특히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의 테르메스 공군기지는 독일 지원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거점을 중심으로 물자 수송과 인도적 지원 물량을 수행하고 있었다. 2005년 안디잔 사태[9)]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정부는 기존의 친 서방 친미정책에서 선회하여 친 러 외교노선을 걸으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2006년 초 미군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완전 철수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군기지로 이전하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1년 미군 주둔 당시 미군 기지를 20년 장기 임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9.11이후 미군의 중앙아시아 전개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라시아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전진기지의 배치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10)]

---

8) http://www.eurasianhome.org/xml/t/news.xml?lang=ru&nic=news&pid=35390&qday=26&qmonth=3&qyear=2009 (2009년 7월 15일 검색)

9) 안디잔 사태는 2005년 5월13일 안디잔 시(市)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 사망자를 187명으로 발표했고 이후 카네기국제재단에서 당시 사태를 담은 비디오를 공개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었다. 키르기스의 바키예프대통령은 안디잔 사태이후 반 정부난민들을 자국 영토로 대피시켰으며 이들 중 439명을 루마니아를 거쳐 제3국으로 망명시켰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개입하였다며 미국 측의 비난에 반발, 2005년 말 자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철수시켰으며, CIS내 반(反)러시아 모임인 '구암(GUAM)'에서 탈퇴하는 등 친 러 성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였다.

10)http : //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aspx?id=2286 2009년 7월 10일 검색 Nirav Patel, Vikram Sin호, "Washington Should Pay Attention to Russian moves in the Asia-Pacific", 2008, World politics Review Exclusive.

www.kci.go.kr

Ⅲ. 중앙아시아 內 미. 러간 지역 안보시스템의 대립

1. 중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안보와 신 거대게임(New-Greatgame)[15]

중앙아시아 지역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보고이다. (이경희 2008, 235). 특히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는 그 생산량에 있어 세계 3대 유전중의 하나이다. 중앙아시아는 현대 국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보전략 중 하나인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5개의 신생 독립국가가 탄생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이 지역에 대하여 전통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와 역외 세력인 미국사이에서 나름대로 편승과 균형이라는 접근방식으로 자국의 안보와 국가발전을 담보하고 있다. 미. 러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안보와 중국과 인도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는 대응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카스피해 에너지 지하자원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 러의 대립을 협력과 대응이라는 외교적 접근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Igor Tomberg 2006, 21-25). 중앙아시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러 강대국간의 영향력 경쟁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편승과 균형, 강대국들은 협력과 대응이라는 정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신범식 2006, 10-13).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석유 산업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립은 석유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갈등과 석유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지역에는 750억 배럴상당의 석유매장량과 6조 9천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미국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의 제1의 유전지대인 텡기스 유전[17]과 제2의 유전지대인 카라차가낙[18]에 투자하였으며 카샤간 해저 유전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석유 확보와 마찬가지로 원유

15) 신 거대게임(New-Great game)은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대국의 헤게모니 투쟁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다. 이 지역에 내장되어 있는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이란, 인도, 터키 등이 영향력과 국가이익,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신 거대게임은 원래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경쟁하였던 영국과 러시아간의 대결을 일컫는 거대게임에서 유래되었다. 19세기 거대 게임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형성된 새로운 경쟁양상을 신 거대게임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16) 카자흐스탄 대통령산하 국가전략문제 연구소의 아스카르 샤흐마노프 부소장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남으로 이란과 인도, 북으로 러시아, 동으로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장기적으로 주둔 시킬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 개발과 수송을 위하여 미군 주둔은 미국에 아주 중요하다. 석유와 가스등 미개발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17) 가채 매장량 60억에서 90억 배럴이며 93년 미국의 셰브론사가 이 유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와 40년간 2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텡기스 유전 컨소시엄인 텡기스 셰브로일(TCO)에는 현재 셰브론과 텍사코가 합병하여 만든 셰브론, 텍사코 외에 미국계 엑손모빌도 참여하고 있다.

18) 가채매장량이 석유 23억 배럴, 천연가스 16조 입방미터로 예상되는 이 지역개발은 KIO컨소시엄이 투자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이탈리아 석유회사 “아집”과 영국의 브리티시가스가 주도를 하지만 셰브론

수송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원유 생산에 못지않게 수송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유 수송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과 서방은 BTC라인[19]을 건설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스 판매에 대한 협약을 맺는 등 카자흐스탄 원유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아티라우-사마라 송유 라인이외에 러시아 주도로 CPC라인[20]을 건설하였다.

신거대게임은 (고재남 2005, 16-20). 소련이 붕괴한 20세기 말부터 중앙아시아에 신생독립국가가 탄생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석유에너지 자원에 대한 강대국들의 패권쟁탈로 시작되었다. 막대한 석유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이 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서방과 미국 자본이 투자되었으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보호와 석유확보를 위하여 군사개입이 발생한 것이다. 9.11테러 이전에는 전통적인 러시아 영향력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하지 못하였으나 9.11테러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나토와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이 공세적으로 시작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는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동맹체제와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협력기구들이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팽팽하게 대치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21]는 2001년 5월 31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경제, 정치, 안보, 사법등의 분야에 대하여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에서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1999년 관세동맹 등 단일 경제권 구성에 합의하였던 국가들이 주체가 되었다.[22]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연대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23] 다양한 경제통상 협력을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이 결성한 경제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친미 경제공동체인 구암(GUAM)[24]은 미국이 카스피해지배권과 중앙아시아 영

텍사코와 러시아 루코일도 참여하고 있다.

19)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그루지야의 트빌리시, 터키의 세이한을 잇는 전장 1760킬로미터의 송유관. 세계은행, 유럽부흥 개발은행, 시티그룹이 투자하고 영국 석유(BP)등의 국제 컨소시엄으로 완성. 2005년 개통되어 그해 7월 시험 운행을 하였다. 하루 100만 배럴의 송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바쿠 유전에서 나오는 양이 적어 카자흐스탄의 악타우와 바쿠를 연결하는 TCP(Trans Caspian Pipeline)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진영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20) CPC라인(Caspian Pipeline Consortium) 카자흐스탄의 텡기스 유전과 흑해 노보로시스크를 연결하는 송유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1년 말 건설하였다.

21) http : //www.evrazes.com/ 2009년 3월 26일 검색. 회원국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벨로루시가 있으며 옵서버국가는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가 있다. 이중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벨로루시는 단일 경제권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22)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창설"---러시아 등 CIS 5개국 합의, 동아일보, 2001년 6월 1일

23) http : //www.sectsco.org/ 2009년 3월 26일 검색. ШОС (Шанхай 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996년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출범한 상하이 협력기구는 우즈베키스탄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명실 공히 중앙아시아와 중국, 러시아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의 총면적은 유라시아의 3/5에 해당하는 3천 18만9천 평방킬로미터이다. 총인구는 전 지구의 1/4에 해당하는 18억 5천5백만 명에 달한다. 그 활동내용으로는 2005년 11월 제 1차 유라시아 경제포럼, 2006년 6월 SCO 무역-산업포럼, 2006년 9월 제 4차 바이칼 경제포럼, 2006년 8월 SCO 웹사이트 이용과 서비스 의정서교환 등 활발하게 회원국간의 정부, 기업간의 경제 협의체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www.kci.go.kr

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연대이다. 구암의 등장으로 가장 영향력을 받는 나라가 러시아이다. 구암의 탈 러시아적 성격과 친미성향은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 러시아의 전통적 지위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구암의 조직이 러시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구암을 견제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내세워 대응을 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상하이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여 미국과 유럽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박상남 2007, 277-278). 이러한 차이로 신, 구 거대게임은 그 목표와 지역은 같으나 그 전개 양상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25]

2. 지역안보 시스템의 대립--나토(NATO)와 안보협력 조약기구(CSTO)의 대립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나토의 동진정책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4년 나토와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군사훈련과 공동협력에 대한 기본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기존의 나토가 유럽연합이라는 제한된 지역방어개념의 군사협력체에서 유럽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적 영역에서의 강화된 방어개념으로 전환하였다는 증거이다. 평화동반자 프로그램(PfP)이라는 광역적 의미의 나토의 군사협력 프로그램은 동유럽국가와 발칸국가 그리고 카프카스국가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그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배경에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나토의 동진정책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군사적 상황과 경제적 한계를 인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 5월 나토와 기본적인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조인서 내용에 나토 신규가입 국가들에 나토의 주둔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무기 배치를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러시아로서는 최소한의 방어정책을 강구하였다. (신범식 2005. 274-276).

나토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은 1995년 타지키스탄과의 공동방어 훈련 실시에 이어 1995년 미국과 카자흐스탄간에 체결된 핵안전에 대한 공동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26] 이는 나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1990년대 중반 평화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PfP))의 일환으로 계획, 추진되었던 정책이며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27] 이 프로그램은 중앙아시

24) 구암(GUAM)-- 1996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1999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한 정치, 경제,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 안보와 분쟁 조정 그리고 아시아와 카프카스-유럽을 잇는 물류교통 연결지로의 지정학적 의미가 있으며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 친미적 경제 공동체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탈퇴로 인하여 4개국으로 줄어들었다.

25) 위 논문

26) Richard Giragosian, "The US Military Engagement in Central Asia and the Southern Caucasus : An Overview",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17 : 1, 43 - 77, 2004, pp. 46-48.

27) Robin Bhatty and Rachel Bronson, "NATO's Mixed Signals in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vol.42, no.3,Autumn 2000, p. 131.

아에서의 자유주의적 가치, 정치적 효율성, 경제개발, 군사개혁, 대테러 전쟁, 조직범죄와 부패척결 등의 부수적 가치도 동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나토의 군사적 동맹전략의 특징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영향력 확대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 안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나토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적 접근정책을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А.сенгупта 2005).

첫째 :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작전의 배후 병참지원을 하는 역할. 아프가니스탄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군수물자의 운송 그리고 인적, 물적, 기술지원이다.

둘째 : 대 테러리즘정책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하여 테러리즘을 척결하고 지역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호령 2003, 243-244).

셋째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개혁과 국가개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군사부문에 대한 개혁과 지역안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군사부문에 대한 개혁은 지역안보를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협력과 합동 군사훈련을 통한 긴급 대치에 역점을 둔다.

넷째 : 평화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PfP))은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개혁에 중점을 둔다. 군 현대화와 합동 군사훈련을 통하여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주 국방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있다.

다섯째 : 국경 수비와 안전 확보이다. 테러리즘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경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나토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긴밀히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자주적으로 국경을 수비하는데 있다.

여섯째 : 나토의 선험적 경험에 의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적 국경수비를 위하여 지원을 한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나토의 구상과 접근은 평화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PfP))의 실천과 실현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접근정책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두고 나토와 안보조약 협력기구가 대립하는 구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이러한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국가안보와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2006년 6월 23일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28]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29] 정상들이 민스크에서 회동했다.[30] 회동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군이 주축이 되는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의 통합

28)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Организация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03년 4월 28일 CIS 6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 기존의 CST(Collective Security Treaty)를 확대 개편한 기구. 2006년 8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여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총 7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29)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2001년 러시아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으로는 벨로루시,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있으며 옵서버로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가 참여하고 있다.

30) http : //www.jamestown.org/edm/article.php?article_id=2371226 2008년 11월 20일 검색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대통령, 벨로루시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군에 대한 논의가 더 실효성 있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의 신속배치군 창설에 동의하였으며 현재 비슈케크에 존속하고 있는 합동사령부개편을 합의하였다.[31] 이들 부대는 평상시 각 국가의 지휘를 받으며 연례 군사훈련 시 비슈케크의 합동 사령부 지휘를 받게 된다. 회동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군이 주축이 되는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의 통합군에 대한 논의가 더 실효성 있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합군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CSTO국가들이 외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이나 작전수행 시 CSTO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지금까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군사적 영향력과 세력을 확대해 온 나토와 미국은 그 입지가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민스크 협정은 중앙아시아와 나토의 직접 협력을 방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나토와 협력을 원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 중 벨로루시와 러시아만 군사적 통합과 더불어 상호방위 협력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CSTO가 지역안보 협력기구의 틀에서 벗어나 상호방위기구로 발전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Ⅳ. 미군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과 대 중앙아시아 전략.

1. 미군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 된 정권교체의 바람은 미군기지가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으로 확산되었다. 시민혁명의 여파로 아카예프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되고 야당지도자인 바키예프가 대통령직을 이었다. (안성호 2008, 242-244). 러시아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을 허용하였던 아카예프정권은 결국 미국에 의하여 제거된 것이다. (Eshanova Z. 2002). 러시아 정부는 정권교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며 키르기스스탄 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들을 키르기스스탄 총선 소요사태의 주범으로 지목 하였다.[32] 이 당시 미국은 키르기스스탄 내에 170여개의 NGO단체를 배후

카자흐스탄의 누슬란 나자르바예프, 키르기스스탄의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 아르메니아의 로베르트 카차리안 대통령, 타지키스탄의 이모말리 라흐모노프대통령이 참석한 이 회동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집단안보 조약기구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밀접한 협력과 개발은 이 기구와 조직에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 간의 통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이러한 통합으로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외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훌륭한 협력기구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논의는 소련 붕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정책인 것이다.

31) 신속 배치군은 10개 대대 4000명으로 편제되며 러시아가 4개 대대, 타지키스탄 2개 대대, 카자흐스탄 2개 대대, 키르기스스탄 2개 대대, 칸트 공군기지에 있는 러시아 전투기 10대와 헬리콥터 12대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중 키르기스스탄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1개 대대만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타지키스탄 또한 타지키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1개 대대로 대신 충원하기로 하였다.

에서 지원하고 있었다.[33]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국제 공화주의재단과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등이 키르기스스탄 총선과정에 개입했으며 우크라이나선거에 참관인으로 활동했던 그루지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도 선거에 개입하였다.

미군의 진출로 인한 중앙아시아 정치적 지형변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전략적 제휴관계였던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불기 시작한 색깔혁명의 도미노 현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선거에 미국을 위시한 친미 NGO단체들의 국가전복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는 등 러시아의 대응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안디잔 사태 이후 친미 정권이었으며 미군 기지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정권은 미군기지의 전격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에 합류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은 더 이상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색깔혁명의 중단을 의미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북서쪽, 키르기스스탄의 전설적인 영웅인 마나스장군을 기념하여 명명된 마나스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냉전시대의 주역이었던 미군과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기지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칸트 공군기지에는 러시아군을 비롯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군들이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칸트공군기지에 전투기 12대와 4-5백명으로 구성된 신속배치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투기 20여대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긴급배치군을 포함하여 병력 6천여명을 주둔시킬 예정이다. 9.11테러 이후 대테러작전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후방 병참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간시기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미군을 위시한 다국적 연합군들이 이곳에 장기주둔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지역의 급진 이슬람세력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테러리즘과 마약밀매를 근절하며 지역안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군주둔을 허용하였지만 미군주둔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의구심에 그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2002년 6월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아카예프간에 키르기스스탄 내 7곳의 군사기지를 향후 15년간 사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7월에는 칸트에 러시아공군기지설치에 합의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또한 독립움직임이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와 접해 있는 이 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것과 중국의 배후에 친미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하여 비슈케크정부에 중국군의 주둔을 요구하였으나 바키예프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키르기스 미 공군기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사태 이후 하나바드 공군기지가 폐쇄되면서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7월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작전이 끝난 지금 중앙아시아지역에 미군주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철수를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역할

32) “키르기스 사태 美가 배후”, 『세계일보』, 2005년 4월 4일
33) “美 지원 없는 시민혁명 없다”, 『동아일보』, 2005년 11월 8일

www.kci.go.kr

이 단순히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쟁의 후방병참기지로써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내 마약 유통과 불법무기 거래를 근절하고 지역 안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이 주목적이다."며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였다.[34]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며 친미정권인 키르기스스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경제 발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았을 뿐 아니라 간시 미공군기지 임대로 국내총생산의 2.5%에 해당되는 매년 5천만 달러의 재정 수입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무이자 차관을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바키예프 정부는 키르기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35] 제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냈으며 등거리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군을 비슈케크에 주둔시키고 있다. 2008년 12월 18일 비쉬케크정부의 바키예프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내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갈등 중에 있다.[36] 이에 대하여 미국은 타지키스탄의 아이니 공항과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공항을 그 대체 기지로 교섭중이며 타지키스탄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37] 이러한 미국의 시도도 종국적으로는 러시아의 양보없이는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러시아는 2003년 키르기스스탄 아카예프정권의 요청에 의하여 수도 비슈케크의 마나스공항에 미국의 간시 공군기지와 30킬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칸트 러시아공군기지를 설치하여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하여 대립하는 러시아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나스 국제공항은 러시아를 위시한 안보 협력기구(CSTO) 부대와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군사력이 팽팽히 대치하는 긴장된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현장이다.

<표 1>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 주둔군 현황

국 가	병 력	장 비	부 대	역 할
타지키스탄	7800명	탱크 128대, 장갑차 314대 포 180문	201기계화소총 사단[38]	치안유지
	1만4천500명		국경 수비대	마약과 테러차단
키르기스스탄	500명	Su -24,25,27	칸트 공군기지	거점 확보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IISS, pp.94-95.참조

34) http : //www.politcom.ru/article.php?id=292 2008년 3월 27일 검색
35) "키르기스대통령 '미군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하라'," 『한국일보』, 2005년 7월 12일.
36) http : //www.allheadlinenews.com/articles/7013456554 2009년 7월 10일 검색
37) http : //www.inosmi.ru/translation/250592.html 2009년 7월 15일 검색
38) 1993년 7월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러시아국경수비대에 대한공격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1기계화 소총사단은 2005년 9월1일 잠시 철수하였다가 타지키스탄정부와 합의하에 2005년 말 다시 주둔하게 되었다.

www.kci.go.kr

2.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정책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포스트 소비에트영역의 신생독립 국가들에 대하여 정형화된 접근정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양정훈 2005, 151-152). 특히 이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1990년대 초기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내부문제로 포스트 소비에트영역에 대한 체계적 접근 정책을 실시할 여유가 없었다. 포스트 소비에트체제 내에서 이러한 러시아의 영향력 상실은 오히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주권과 독립에 큰 자극이 되었다는 아이러니도 성립된다. (김선래 2007, 122). 소련이라는 거대 종주국의 붕괴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앙아시아 각국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으나 또 다른 의미로 독립국 건설과 경제발전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소련 시기동안 모든 행정과 사회시스템, 주요 국가체계를 러시아인들이 통제하고 있어 자국민들은 하위체계에서 보조 역할만 해왔기에 독립 이후 그 인력 수급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자주독립 국가의 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표 2>에서 보듯이 독립 초기 열악한 군사력으로 인하여 국방부문을 러시아에 의존해 있으며 모든 군장비와 시스템 그리고 장교들까지 소련군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는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2년에 CST(안보조약 협력체)를 결성하여 공동 방위기구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에 명목상 CIS 통합군도 설치되었으며 연례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였었다. 2003년에는 이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CSTO(안보조약 협력기구)를 결성하였고, 이 기구 안에 러시아군이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신속 대응군도 결성 하였다.

9.11테러 이후 미군이 중앙아시아에 주둔하면서 전통적 러시아 영향권인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푸틴 정부하에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군사적 접근전략이 강화되었다. 특히 푸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집단안보 조약기구를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며, 유라시아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설정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중앙아시아국가의 군사력

국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육군	군사편제	4개 지역 사령부, 2개 작전 사령부, 타시켄트사령부	2개 독립여단, 3개 공정대대, 대공1개 여단,		지역 사령부, 포병여단1,지대지 미사일여단1,공중 강습여단1
	육군병력	4만명	8천 500명	7천 6백명	4만 6천 800명
	전력	탱크 340대, 포병여단 1, 기계화 보병여단1, 공중 강습여단1,	T-72탱크 215대, BMO-1/BMP-2 387대	탱크 40대, 장갑차 120대,	탱크 930대 (T-72 650대 포함), BMO-1/BMP-2 500대

www.kci.go.kr

공군	군사편제	7개 비행단, 헬기연대			
	전력	전투기 MIG29--30대, MI-공격용 헬기 29대	전투기-4대 MIG21--48대	헬기 10여대,	전투기 164대 (MIG-29 40대 포함), 헬기 14대
	병력	1만 5천명	4천명		1만 9천명
해군					연안 경비대 4천200명, 소형 함정 18척
예비병력		준 군사 조직 2만명		예비군 1백50만명	준 군사 조직 3만 4천 5백명(이중 내무보안군 2만, 대통령 수비군 2천명)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6, (London : I.I.S.S. 2006) pp. 235-236.참조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군사적 접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해 주고 양자주의의 원칙 아래 상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포스트소비에트정책은 감정적 통합론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통합주의는 중앙아시아 각국들에게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으며 이 때문에 9.11테러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주도적으로 미군 주둔을 원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의 우려를 일소시키고 경제 공동체와 군사 협력관계를 통하여 러시아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정책이다.(Stephen Blank 2007, 1-15).

둘째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중국과 인도를 위시한 대륙세력과 그리고 미국과 일본, EU의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접근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러시아와 중국 인도를 주축으로 하는 유라시안 벡터(eurasian vector)와 미국을 위시한 영국 일본의 트랜스 퍼시픽 벡터(transpacific vector)의 접경지 이며 충돌지이기도 한 중앙아시아를 두 세력의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 러시아는 트랜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나토의 군사기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트랜스 코카서스의 이슬람 세력의 도전과 체첸 전쟁으로 급진 이슬람 세력의 확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CIS국가 내의 군사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이슬람 세력과의 충돌은 러시아 입장에서 큰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상남 2003). 때문에 대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와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유연한 군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결구도가 그리 손해만 되지 않는다고 계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일련의 정책 변화는 9.11테러 이후 중앙아시아지역에 미군기

www.kci.go.kr

지와 나토군의 기지가 설치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넷째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이곳에 장기적으로 러시아군을 주둔시키려 하고 있다. (Togzan Kassenova 2007, 3-8).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시기의 군 체계와 조직 그리고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현대화와 장비 교체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통하여 군 현대화와 군 장비를 보급하며 군 기간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국경수비를 위하여 러시아군이 투입되어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요청에 의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는 등 <표 3>에 보듯이 중앙아시아 각국에 러시아군을 주둔시킴으로서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 러시아는 다자간 안보체제 구도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5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집단 안보조약(CST)을 통하여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2003년에는 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 안보전략 연장선상으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각국에 러시아 군사기지설치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9월 22일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과 키르기스스탄의 아카예프대통령은 비슈케크 칸트 공항 내에 러시아 공군기지 설치를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 의거 Su-27, Su-25 전투기 10여대와 300여명의 공군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러시아 공군 전초기지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타지키스탄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유입되는 마약과 무기 밀매 그리고 이슬람 테러세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7천 800명의 지상군과 1만 4천 500명의 국경 수비대를 타지키스탄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남으로 이란과 인도 그리고 이슬람세력을 제압하는 지정학적 전략지대로 보고 이 지역에 미국과 나토를 의도적으로 개입시켜 다자간 안보구조의 틀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안보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다.

Ⅴ. 끝내는 말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시작된 중앙아시아 내 미군진출은 기존의 잠정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 국가이익을 놓고 첨예한 갈등의 시작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도 그리고 자국내 체첸을 비롯한 이슬람세력의 테러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의 색깔혁명의 확산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MD프로그램의 진행으로 급격히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었다.

www.kci.go.kr

미.러의 글로벌 경쟁과는 다르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추진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군사적 접근과 미군주둔으로 인한 중앙아시아 전략적 지형 변화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러 사이에서 균형과 편승이라는 외교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아시아 미군진출은 이들 국가들에 있어 위험과 대안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키르기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지대에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마나스공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쟁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벌이는 게임의 축소판이다. 수도 비슈케크 내 러시아의 칸트공군기지와 미국의 간시공군기지가 30킬로미터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7곳의 러시아군 기지와 나토를 위시한 미군기지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내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이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중앙아시아 내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 시스템과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며 체계적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9.11테러 전후로 구분된다. 9.11테러 이전의 접근전략은 나토를 통한 우회적 접근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9.11 이후 미국의 접근 전략은 직접적이고 공세적이 되었다. 러시아의 동의하에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 친미적 정권교체 바람을 일으켰다. 중앙아시아에서도 미군기지가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친미정권의 수립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즉 9.11이후 미국의 정책은 적극적이며 공세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겠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對 테러리즘이다. 1999년, 2000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이슬람운동(IMU)의 발호와 테러, 그리고 對 테러전쟁인 아프카니스탄전이다. 미국의 군사접근 전략 중 주요 명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급진주의를 제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 있어 이슬람 세력이 발호하여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공세적 방법으로 제압한다는 의미이다. 소련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은 급진 이슬람운동의 무풍지대였으나 1990년대 내전을 겪으면서 급진 이슬람주의가 발호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 對 이란 견제로서의 미군 주둔이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현재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반미 성향은 미국의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 공격으로 제압한다는 타격 전략에 해당되는 국가이다. 이란의 배후에 미공군기지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력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 對 중국, 對 러시아 견제로서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 경제공동체(SCO)를 유라시안 벡터(eurasian vector)의 주요 테마로 보고 있다. 트랜스 퍼시픽 벡터(transpacific vector)의 주요 세력인 미국은 대륙세력의 심장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기지 존재 자체가 이를 견제하는 주요 사안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넷째 : 중앙아시아 석유 에너지 자원의 안전과 확보가 중요한 군사 전략의 목표이다.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카스피해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지하자원과 석유가스 자원의 확보와 개발

www.kci.go.kr

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항하고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다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있어 역외세력인 미국을 역내로 개입시켜 러시아 주도의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안정과 중앙아시아 내의 러시아 지분을 유지하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소련붕괴 이후 일정부문 준비된 세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결이 전통적 갈등 해결방법인 전쟁과 냉전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전략적 제휴관계였던 미. 러가 세계무대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더 치열한 각축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세계적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김선래(2007) .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 남카프카스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 23권 1호,

고재남(2005).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 게임’과 관련국 대응”, 『중소연구 통권』, 107호,

동북아전략균형 2005,(한국 전략문제연구소,2005), p.289

박기련(20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국제정치논집』 제 44집, 4호 ,

박상남(2003). “미군 주둔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3호,

_____(2007).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변동 : 정치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동연구』,제2권 1호 .

신범식(2005). “푸틴시기 러시아 근외정책과 중앙아시아”, 『현대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한울 아카데미,

_____(2006). “유라시아 신 거대게임의 전개와 유라시아 질서 전망”, 2006년 한국 슬라브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 슬라브 학회,

심경욱(2006). “유라시아 국가들의 군사. 안보 현안,”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한울 아카데미,

www.kci.go.kr

이호령(2003).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분석,” 『평화연구』, 제 11권 2호 봄호,
이경희(2008).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과 국제관계”, 『중동연구』, 제 27권 1호
양정훈(2005).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슬라브 연구』, 21권 1호
안성호(2008). “독립국가연합(CIS)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제 48집,
정세진. “구암 : 과정과 모험, 그리고 그 전망”, 『월간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연구』, 2006년, 8월호.
홍완석엮음(2001). 『21세기 러시아정치와 국가전략』, 일신사,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창설”---러시아 등 CIS 5개국 합의, 『동아일보』. 2001년 6월 1일, “키르기스 사태 美가 배후”, 『세계일보』. 2005년 4월 4일, “美 지원 없는 시민혁명 없다”, 『동아일보』. 2005년 11월 8일, “키르기스대통령 ‘미군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하라’,” 『한국일보』. 2005년 7월 12일,

A.сенгупта(2005). "11. Сентября 2001 года 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4(40).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6, (London : I.I.S.S. 2006)
Igor Tomberg(2006). "The Caspian : A New Stage in The Great Energy gam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41),
Richard Giragosian(2004). "The US Military Engagement in Central Asia and the Southern Caucasus : An Overview",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17 : 1, 43 - 77,
Philip A. Karber(1984). "The Strategy In Defense of Forward Defense,"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Vol. 121 No. 10(May)
Peter Bender(2003). "the New Roman Empire?" ORBIS(Winter) pp.143-145
Robin Bhatty and Rachel Bronson(2000), "NATO's Mixed Signals in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vol.42, no.3,Autumn
Stephen Blank(2007). "Russia and CIS :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Zdzislaw Lachowski(2007).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SIPRI Policy Paper No.18, http : //www.jamestown.org/edm/article.php?article_id=2371226 (검색일 : 2008. 11. 20)
http : //www.evrazes.com/ (검색일 : 2008. 10. 26)
http : //www.jabo.co.kr/sub_read.html?uid=17570&section=section1(검색일 : 2008. 3. 29)
http : //www.sectsco.org/ (검색일 : 2009. 3. 06)
http : //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113(검색일 :

www.kci.go.kr

2009.7.10)
http : //www.allheadlinenews.com/articles/7013456554 (검색일 : 2009. 7. 10.)
http : //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aspx?id=2286 (검색일 : 2009. 7. 10.)
http : //www.eurasianet.org/russian/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71309ru.shtml (검색일 : 2009.7.15)
http : //www.inosmi.ru/translation/250592.html (검색일 : 2009. 7. 15)
http : //www.eurasianhome.org/xml/t/news.xml?lang=ru&nic=news&pid=35390&qday=26&qmonth=3&qyear=2009 (검색일 : 2009. 7. 15.)

www.kci.go.kr

Abstract

Extension of the U. S. military influence and opposition of the Russia: Study on Conflict of the regions of Central Asia

Kim seun rae*

The regions of Central Asia have each acquired an elevated strategic importance in the new security paradigm of the U. S military into post-September 1lth.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began before September 11th, the region became an important platform for the projection of U.S. military power against the Taliban in neighboring Afghanistan. But regions of Central Asia face more fundamental intern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overall deficit of democracy, and the related predominance of "strongmen over statesmen," to economic mismanagement and widespread corruption post-September 1lth.

The report offers an insightful pre-September 11 look at the strategic imperatives driving the US engagement in these regions at that time. And the report also gives information that the US engagement in these 'sensitive' regions must 'review to what degree we are creating an implied commitment to defend these governments against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o their security and independence'.

Also the important fact that US forces must address these issues 'regardless of the depth of their commitment to the region' but that 'the current situation, however, suggests that they may have to face them somewhat sooner than expected'.

The Central Asian region also shares a landlocked dependency, both in terms of relying on an external guarantee of security as well as in terms of economics and energy export routes. This dependency, combined with the internal weakness of these states, contributes to the challenges facing a sustained US engagement in the region

■ **논문접수일** : 2009년 11월 2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1월 24일, **게제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 Hankook University of Foreingn Studies

www.kci.go.kr